

勞 動 經 濟 論 集  
第29卷(1), 2006. 4, pp. 99~12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권혜자\*\* · 조우현\*\*\*

이 연구는 1982~2002년까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력(業力),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일자리 창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8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주제어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 시장지배력, 시장점유율

### I. 머리말

상품시장의 불완전성(product market imperfection)은 노동경제학보다는 산업조직론의 주된 관심사였다. 노동경제학은 완전 경쟁시장 모형을 표준적인 가정으로 채택하고

\* 이 논문은 권혜자의 박사논문,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2005)」에 기초하여, 몇 가지 통계분석을 추가한 것이다. 박사논문 심사시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우영, 류재우, 이윤재, 조준모,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숭실대학교 (ostep@hanmail.net)

\*\*\* 숭실대학교 (whcho@ssu.ac.kr)

있는 반면에, 산업조직론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상품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는 불완전 경쟁시장 모형을 표준적인 가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실상,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경쟁노동시장 모형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사용자 특성과 관련된 현상들이 존재한다. 산업간 임금격차,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독과점 이윤과 지대 등의 존재는 경쟁노동시장 가설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으며, 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이 노동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Manning(2003)은 노동경제학이 산업조직론의 접근을 수용하여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는 가정으로부터 분석을 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독점기업이 산출량 제한을 통해서 고용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은 대규모 고부가가치, 고임금, 고설비 사업체이며, 업력이 긴 사업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글은 이러한 사업체 특성들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상품시장 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효과가 지난 21년간 한국의 광공업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된 가설

기존의 사업체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규모, 업력과 같은 사업체 특성들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연구의 선구자인 Davis, Haltiwanger, Schuch(1996) 등은 대기업, 업력(業力)이 오래된 기업, 고부가가치, 고설비, 고임금 기업들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1930년대의 통계학자인 Gibrat는 70여 년에 걸친 기업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의 기업 규모와 미래의 성장률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Gibrat's law).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규모나 대규모인가와 무관하게 기업들의 성장률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엔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Davis, Haltiwanger, Schuch(1996)는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률에 대한 신화가 통계적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다. 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률이 높지만 동시에 일자리 소멸도 높기 때문에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으며, 오히려 대기업과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일자리 순증가율이나 일자리 지속성도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이 신생 기업에서 나타나지만, 수많은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생존에 실패하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는 일자리 소멸도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들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Picot and Durpuy, 1996), 독일(Wagner, 1995), 일본(Genda, 1998)에 대한 연구 결과는 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창출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호주(Borland and Home, 1994), 영국(Konings, 1995)에 관한 연구들은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업력과 규모가 다른 사업체 특성을 통제했을 때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김혜원, 2004). 또한 그는 산업별 분석에서 산업집중도(상위 4사 출하집중률:CR<sub>4</sub>)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산업집중도는 일자리 변동에 거의 영향력이 없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업체 규모와 업력, 자본장비율, 노동생산성, 임금수준과 같은 사업체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으나,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한편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독점기업의 임금 및 고용결정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상품시장 지배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독과점적 임금프리미엄의 입증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조우현, 1992, Nickell, Vaintomaki and Wadhvani, 1994). 상품시장 지배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독점기업이 산출량 제한을 통해서 과소고용을 하거나(Nickell, 1999), 상품시장에서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독점지대(monopoly rent)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거나, 노동조합이 지대 추구하고 함께 임금교섭자들의 일자리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Stewart, 1983, Geroski, Gregg and Van Reenen, 1996).

그렇지만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순일자리 증가율과 같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품시

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체들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로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사업체들이므로, 경쟁적 사업체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순증가율도 낮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사업체 규모나 업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독자적인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체 속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간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 III. 자료와 주요 변수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1~2002년까지 21개 연도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이다. 광공업통계조사는 1968년 이후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급여, 종사자수, 출하액, 생산비용,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등을 매년 전수조사한 자료이다. 광공업통계조사에 조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사업체 내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피고용자수에 대하여 연말과 조업 기간 중 월 평균값을 각각 조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연말 종업원수로서, 상용고 및 임시·일용고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것이다.

주요 일자리 변수의 정의는 Davis, Haltiwanger, Schuch(1996)가 사용했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 등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sup>1)</sup>

-t기의 일자리 창출률(Job Creation:  $JC_t$ ):

t기와 t-1기 사이에 문을 열거나 고용이 증가한 사업체에서 증가한 일자리수의 합계

-t기의 일자리 소멸률(Job Destruction:  $JD_t$ ):

1) 김혜원(2004)에서 재인용

- t기와 t-1기 사이에 문을 닫거나 고용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감소한 일자리수의 합계
- t기의 순일자리 증가량(Net Job Growth:  $JG_t$ ):
- t기와 t-1기 사이의 순일자리의 변화(일자리 창출량-일자리 소멸량)
- t기의 일자리 재배치량(Job Reallocation:  $JR_t$ ):
- t기와 t-1기 사이에 모든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의 합계
- t기의 초과 일자리 재배치량(Excess Job Reallocation:  $JE_t$ ):
- 일자리 재배치량과 순일자리 증가량의 절대값의 차이

이에 따라 개별 사업체  $i$ 의  $t$ 기 일자리 창출률(job creation rate:  $JCR_{it}$ )은 일자리 창출량( $JC_{it}$ )을 두 기간의 평균 종업원수( $JS_{it}$ )로 나눈 값이다.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체  $i$ 의  $t$ 기 일자리 소멸률(job destruction rate:  $JDR_{it}$ )과  $t$ 기 일자리 순증가율(net job growth rate:  $JGR_{it}$ )은 각각 일자리 소멸량( $JD_{it}$ )과 순일자리 증가량( $JG_{it}$ )을 두 기간의 평균 종업원수( $JS_{it}$ )로 나눈 값이다.

$$\text{개별 사업체 } i \text{의 } t \text{기 일자리 창출률: } JCR_{it} = \frac{JC_{it}}{JS_{it}} \quad (1)$$

$$\text{개별 사업체 } i \text{의 } t \text{기 일자리 소멸률: } JDR_{it} = \frac{JD_{it}}{JS_{it}} \quad (2)$$

$$\text{개별 사업체 } i \text{의 } t \text{기 일자리 순증가율: } JGR_{it} = \frac{JG_{it}}{JS_{it}} \quad (3)$$

개별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집계한  $t$ 기의 총 일자리 창출률( $JCR_t$ ), 총 일자리 소멸률( $JDR_t$ ), 총 일자리 순증가율( $JGR_t$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 \text{기의 총 일자리 창출률: } JCR_t = \sum_{i \in \Omega} JC_{it} / \sum_{i \in \Omega} JS_{it} \quad (4)$$

$$t \text{기의 총 일자리 소멸률: } JDR_t = \sum_{i \in \Omega} JD_{it} / \sum_{i \in \Omega} JS_{it} \quad (5)$$

$$t\text{기의 총 일자리 순증가율: } JGR_t = JCR_t - JDR_t \quad (6)$$

$$t\text{기의 총 일자리 재배치율: } JRR_t = JCR_t + JDR_t \quad (7)$$

$$t\text{기의 총 초과 일자리 재배치율: } JER_t = JRR_t - |JGR_t| \quad (8)$$

이와 같이 연도별 일자리 변동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자료에서 2년 동안 연속 관찰되는 자료를 재구축하였다(이하 지속사업체 자료). 그러므로 2002년의 지속사업체 자료는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지속관찰된 자료이다. 이렇게 재구성한 2개년간 지속사업체 자료의 사업체 관측치는 약 119만여 개이며, 총 종사자수는 약 5,098만여 명이다(부표 1 참조). 지속사업체 자료는 사업체수로는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의 약 75%에 해당하며, 총 종사자수로는 약 88%에 달한다. 두 자료에서 평균 종사자수는 차이가 있는데, 원자료에서는 평균 37명이지만, 지속사업체에서는 43명이다. 이는 지속사업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체들이 주로 소규모 사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핵심 변수인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주는 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사업체의 출하액이 해당 세계 분류산업의 총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중에서<sup>2)</sup> 세계분류별 산업내에서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사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체로 정의하고, 10% 미만인 사업체를 경쟁 사업체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정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에 엄격하게 부합되지는 않는데, 2002년 자료의 경우 산업내 시장점유율 10% 이상인 620개 사업체 중에서 연간 출하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체는 98.1%, 500억 원 이상 사업체는 53.7%, 출하액 기준 상위 3사에 속하는 사업체는 94.2%이지만, 1사의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체는 7.4%이며, 상위 3사 출하액 합계가 75% 이상에 속하는 사업체는 19.5%임을 밝혀 둔다.

2)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② 상위 3 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단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 사업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9년 개정).

사업체 단위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다만 한국에서 독과점 기업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체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업체 단위의 시장점유율이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과소 포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광공업통계조사는 사업체를 기본 조사 단위로 하고 있어 1982~2002년까지 일관된 시계열로 기업과 사업체 단위를 구분할 수 없으며, 기업체 단위의 통계가 재무관련 통계 작성에서 유용한 것과는 달리, 사업체 단위의 통계는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 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통계 작성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시장점유율을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게 된다.

#### IV.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1982~2002년까지 21개년간 지속사업체 자료에서 나타난 총 일자리 변동을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1개년간 광공업 일자리가 100개라고 본다면, 연평균 9.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0.9개의 일자리가 소멸함으로써 총 일자리가 -1.3명의 음(-)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총일자리 변동을 보여주는 일자리 재배치율(JRR)은 19.8이며, 반드시 필요했던 일자리 변동 이외에 초과로 이루어진 초과 일자리 재배치율(JER)은 16.3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광공업 지속사업체자료의 일자리 변동은 자료의 재구성 과정에서 5인

<표 1>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에 나타난 일자리 변동(1982~2002)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자리 창출률(JCR)	9.7	2.5	5.6	14.0
일자리 소멸률(JDR)	10.9	3.3	6.4	18.9
일자리 순증가율(JGR)	-1.3	5.5	-13.3	7.6
일자리 재배치율(JRR)	16.7	8.4	-8.1	26.7
초과일자리재배치율(JER)	11.6	6.1	-7.6	20.1

자료: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

3) 일자리 변수의 식은 식 (4)~식 (8)을 사용하였다.

4) 초과 일자리 재배치율(JER)은  $JRR - |JGR|$ 이므로 연도별 평균값을 제시할 경우 표에서 제시된 JRR과 JGR을 이용해 계산되는 값과 차이가 있다.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및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을 무시한 상태에서 계산된 것이다. 광공업통계조사는 5인 이상의 사업체 조사이므로  $t-1$ 기에는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었으나  $t$ 기에는 4인 이하로 감소하여,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와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되어 사라진 사업체가 배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t-1$ 기에 이미 창업한 사업체이지만 종업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체도 조사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는 광공업통계조사에서  $t$ 기와  $t-1$ 기에 모두 존재하는 자료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t$ 기에 조사하기 시작한 진입업체와  $t$ 기에 퇴출된 퇴출업체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사업체 자료를 교정함으로써 전체 광공업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일자리 변동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교정된 자료는 이하에서 광공업 사업체 부분수정 자료로 칭함).

이를 계산한 방법은 광공업 지속사업체의 연결 과정에서 ID가 일치하지 않아 누락한 사업체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신규 진입하는 데 최소한 1년의 기간이 걸리고 그동안 평균 2명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t$ 기에 생성되거나 퇴출된 사업체라 하더라도 자본장비가 단기간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록상으로 사업체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명이 자본장비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의 한계 교정방법

	광공업 실태조사 자료의 한계		지속사업체 자료의 한계 교정	
	t-1 기	t 기	t-1 기	t 기
2기간 지속사업체	자료 있음	자료 있음	자료 있음	자료 있음
t기 진입업체	자료 없음	자료 있음	2명으로 계산	자료 있음
t-1기 퇴출업체	자료 있음	자료 없음	자료 있음	2명으로 계산

<표 3> 광공업통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일자리 변동(1982~2002)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자리 창출률(JCR)	19.3	3.4	11.7	24.7
일자리 소멸률(JDR)	18.5	3.6	12.2	28.9
일자리 순증가율(JGR)	0.8	6.3	-17.2	12.5
일자리 재배치율(JRR)	37.8	3.1	33.7	46.8
초과일자리재배치율(JER)	33.2	5.4	23.4	45.8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부분수정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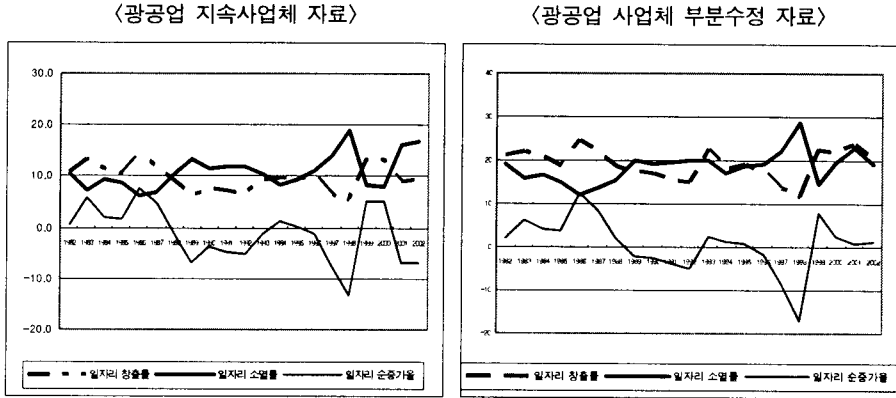
이렇게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가 갖는 한계를 교정하면,  $t-1$ 기와  $t$ 기 사이에서 일어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표 3>은 이렇게 추정한 광공업통계조사의 전체 일자리 변동을 보여준다. 이렇게 계산한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의 일자리 변동은 일자리 창출률 19.3, 일자리 소멸률 18.5, 일자리 순증가율 0.8, 일자리 재배치율 37.8로 나타나고 있어, <표 1>의 지속사업체 일자리 변동의 약 두 배에 달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상당 부분이 사업체의 생성 및 소멸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사업체 자료는 광공업의 사업체와 종사자수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와 광공업 사업체 부분수정 자료의 일자리 변동의 움직임은 매우 흡사하다. [그림 1]은 1982~2002년까지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와 광공업 사업체 부분수정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증가율의 추이를 그린 것이다. 일자리 변수들의 절대적 크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에 나타난 일자리 변수들의 움직임이 흡사하기 때문에, 이후의 세부적인 분석에서 지속사업체 자료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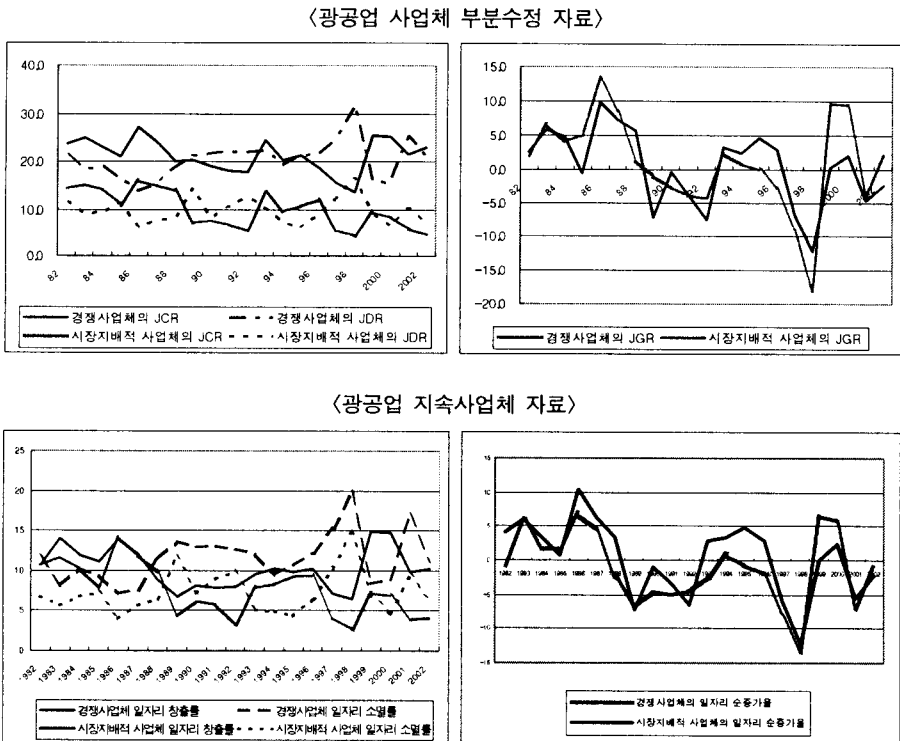
[그림 1]에 의하면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 시점은 1988년으로 나타난다.<sup>5)</sup> 이 시점을 계기로 하여 그간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높은 일자리 창출이 정체 상태로 돌아선 것이다. 일자리 창출률은 1980년대에는 10%를 넘었으나 1988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소멸률도 1980년대에는 한 자리 수였으나 1988년 이후에는 10%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이 증가함에 따라 1988년 이후 일자리 순증가율도 추세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일자리 변수들의 추세는 시계열이 짧아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1982~1998년까지의 흐름만을 살펴본다면,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이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의 추세가 1980년대 후반에 감소추세로 돌아선 시점이 노동조합의 활성화 등 노동공급의 변화 시점과 일치하고 있으나,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조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5) 예를 들어 1988년의 일자리 창출률은 1987년과 1988년 사이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림 1)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의 연도별 일자리 변동



(그림 2)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의 일자리 순증가율



한 가지 의문은 1988년 이후 광공업 일자리 창출의 정체가 독과점 대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경쟁 사업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구분하여 그 추이를 살펴 보았다(그림 2 참조). 여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체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산업세계 분류별 출하액의 10% 이상인 사업체로 정의되며, 경쟁 사업체는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사업체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에서 모두 일자리 창출의 감소추세와 일자리 소멸의 증가추세가 나타났으며, 그러한 변화추세가 모두 1988년을 기점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경쟁 사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 변화추세는 경쟁 사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88년을 기점으로 일자리 창출률이 감소했으며,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일자리 소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의 일자리 순증가율도 모두 198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경쟁 사업체의 일자리 순증가율의 감소추세는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감소추세보다 큰 폭으로 나타나는데, 1990년대로 갈수록 시장지배적 사업체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즉 경쟁 사업체의 일자리 순증가율의 감소가 시장지배적 사업체에서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광공업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광공업의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이미 그 10년 전인 1988년에 이미 정체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체와 감소추세가 199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폭발적인 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 V.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 1. 일자리 창출의 결정요인

시장지배적 사업체는 경쟁 사업체에 비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낮지만, 일자리 순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는 다른 사업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표 4〉 시장점유율 계층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1982~2002)

시장점유율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	일자리 재배치율	초과일자리 재배치율
1% 미만	10.9	13.1	-2.1	24.0	21.9
1-5%	9.7	10.8	-1.1	20.4	19.3
5-10%	8.0	9.5	-1.5	17.4	15.9
10% 이상	7.8	7.4	0.5	15.2	14.8

주: 일자리 변동의 값은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계층별 일자리 변동을 구하여 평균한 값임.  
자료: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

체의 시장점유율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사업체의 산업세세분류별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체로 정의하고, 시장점유율 1% 미만과 1~5%, 5~10%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경쟁 사업체일수록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높지만, 일자리 소멸률이 창출률을 압도함으로써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체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낮지만, 일자리 창출률이 소멸률을 압도함으로써 일자리 순증가율이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고 확증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은 업력이 오래된 대규모의 고임금 사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력, 규모, 임금수준 등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체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라 일자리 변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의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2~2002년까지 21개년도 지속사업체 자료인데, 이 절에서는 1983년, 1989년, 1993년, 1999년의 4개년도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각 연도의 일자리 변수는  $t-1$ 기와  $t$ 기의 두 기간의 일자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1989년도의 일자리 변수는 1988년도와 1989년도 사이의 일자리 변화율이다.

회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을 각각 사용하였다.<sup>6)</sup> 종속변수로 사용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각

6) 일자리 변수는 식 (1)~식 (3)을 사용하였다.

각 0에서 좌측 절단(left-censored data)되어 있으므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 없었거나 또는 일자리 소멸이 없었던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모형은 일자리 창출이 0이거나 또는 일자리 소멸이 0인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토빗 모형(Tobit model)으로 추정하였다. 일자리 순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은 종속변수의 값이 -2에서 2의 값을 가지므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업체 업력, 사업체 규모, 자본장비율, 부가가치율, 임금수준, 사무직 비중, 시장점유율, 산업더미를 사용하였다(표 5 참조). 사업체 규모는 t기와 t-1기의 평균 종사자수의 로그값을 사용하였으며, 자본장비율과 부가가치율, 임금수준은 광공업통계조사에 나타난 각각의 연간 총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1인당 자본장비율, 1인당 부가가치율, 1인당 임금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은 기존의 사업체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이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투자 수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수출액의 비중이나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사업체의 노조 유무 혹은 노동조합 조직률, 기업의 소유구조, 원하청 관계의 성격 등이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독립변수들이다. 그러나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이러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여기에서 일자리 변동에 대한 사업체 시장점유율의 추정계수는 변화율 변수(change ratio variables)에 대한 수준 변수(level variables)의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시장점유율 추정계수의 해석은 시장점유율 수준에 따른 일자리 순증가율의 변화로 해석되며,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일자리 순증가율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sup>7)</sup>

먼저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연도에서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은 사업체의 업력, 규모 등 다른 사업체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률에 부(-)의 효과를 미치며, 모든 년도에서 통

7)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일자리 순증가율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Antelius, J and L. Lundberg(2000)의 연구가 있는데, 사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 일자리 순증가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혀둔다(결과 생략).

<표 5> 주요 변수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b>&lt;종속변수&gt;</b>	
일자리 창출률(JCR)	양의 일자리 증가인원/2기간 평균 종업원수
일자리 소멸률(JDR)	(음의 일자리 증가인원/2기간 평균 종업원수)의 절대값
일자리 순증가율(JGR)	일자리 순증가인원/2기간 평균 종업원수
<b>&lt;독립변수&gt;</b>	
사업체 업력	t-1기의 사업체 업력
사업체 규모	t 기와 t-1기의 평균 종업원수의 로그값
1인당 자본장비율	t-1기의 (유형고정자산/종업원수)의 로그값
1인당 부가가치율	t-1기의 ((생산액-생산비)/종업원수)의 로그값
1인당 임금수준	t-1기의 1인당 임금의 로그값
사무직 비중	t-1기의 사무관리직 비중
시장점유율(×100)	t-1기의 산업 세세분류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산업더미	산업중분류별 산업더미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일자리 창출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은 일자리 소멸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시장점유율의 추정계수는 198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일자리 소멸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소멸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이다. 사업체의 업력과 규모 등의 속성을 통제했을 때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소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창출이 낮고 일자리 소멸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는 <표 4>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서, 다른 사업체 속성을 통제했을 때에는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낮다는 것이다.

연도별 분석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1989년 이후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추정계수는 1990년대 후반

〈표 6〉 일자리 창출률의 회귀분석 결과(토빗모형)

	1983			1989			1993			1999		
	추정 계수	표준 오차	Pr	추정 계수	표준 오차	Pr	추정 계수	표준 오차	Pr	추정 계수	표준 오차	Pr
상수항	-0.3477	0.0300	***	-0.4055	0.0314	***	-0.5837	0.0407	***	-0.4475	0.0251	***
업력	-0.0096	0.0005	***	-0.0002	0.0001	***	-0.0085	0.0003	***	-0.0077	0.0003	***
규모	0.0078	0.0030	**	-0.0192	0.0025	***	0.0491	0.0024	***	0.0478	0.0022	***
임금	0.2936	0.0089	***	0.0247	0.0069	***	-0.0081	0.0060		-0.0227	0.0057	***
자본장비율	0.0639	0.0028	***	0.0347	0.0022	***	0.0452	0.0019	***	0.0320	0.0017	***
부가가치율	0.0260	0.0065	***	0.0494	0.0049	***	0.0611	0.0039	***	0.0648	0.0038	***
사무직비중	-0.4385	0.0251	***	0.0000	0.0169		0.0099	0.0124		-0.0941	0.0103	***
시장점유율	-0.0059	0.0006	***	-0.0032	0.0006	***	-0.0063	0.0006	***	-0.0080	0.0006	***
산업더미	✓	✓		✓	✓		✓	✓		✓	✓	
관측치	29,902			48,964			60,169			62,566		
log-likelihood	-19,969.1			-26,862.2			-32,003			-38,932.3		
좌측절단	15,118			31,691			37,575			32,213		

주: 1) \* p<0.1, \*\* p<0.05, \*\*\* p<0.01.  
 2) 산업중분류 더미변수의 추정결과는 생략함.

〈표 7〉 일자리 소멸률의 회귀분석 결과(토빗모형)

	1983			1989			1993			1999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상수항	0.2507	0.0357	***	0.0436	0.0247		0.1376	0.0350	***	0.1941	0.0268	***
업력	0.0069	0.0006	***	0.0001	0.0000		0.0030	0.0003	***	0.0035	0.0003	***
규모	-0.0467	0.0040	***	0.0390	0.0021	***	0.0279	0.0024	***	0.0248	0.0026	***
임금	-0.0545	0.0120	***	0.0450	0.0063	***	0.0358	0.0063	***	-0.0050	0.0068	
자본장비율	-0.0409	0.0037	***	-0.0276	0.0019	***	-0.0372	0.0019	***	-0.0356	0.0020	***
부가가치율	-0.0893	0.0087	***	-0.0609	0.0043	***	-0.0821	0.0041	***	-0.0719	0.0045	***
사무직비중	0.1088	0.0333	**	0.0589	0.0150	***	0.0943	0.0127	***	0.1200	0.0122	***
시장점유율	0.0054	0.0008	***	0.0005	0.0005		0.0027	0.0005	***	0.0050	0.0006	***
산업더미	✓	✓		✓	✓		✓	✓		✓	✓	
관측치	29,902			48,964			60,169			62,566		
log-likelihood	-19,863.2			-28,060.9			-34,306.8			-33,347		
좌측절단	18,913			25,960			35,564			43,587		

주: 1) \* p<0.1, \*\* p<0.05, \*\*\* p<0.01.  
 2) 산업중분류 더미변수의 추정결과는 생략함.

〈표 8〉 일자리 순증가율의 회귀분석 결과(OLS 추정)

	1983		1989		1993		1999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상수항	-0.2603	0.0248 ***	-0.1963	0.0197 ***	-0.2817	0.0255 ***	-0.2604	0.0175 ***
업력	-0.0065	0.0004 ***	-0.0001	0.0000 ***	-0.0040	0.0002 ***	-0.0045	0.0002 ***
규모	0.0085	0.0026 ***	-0.0216	0.0016 ***	0.0065	0.0016 ***	0.0118	0.0016 ***
임금	0.2435	0.0077 ***	0.0151	0.0046 ***	-0.0040	0.0042	-0.0102	0.0042 *
자본장비율	0.0480	0.0024 ***	0.0260	0.0014 ***	0.0331	0.0013 ***	0.0271	0.0012 ***
부가가치율	0.0438	0.0056 ***	0.0427	0.0032 ***	0.0569	0.0027 ***	0.0565	0.0028 ***
사무직비중	-0.3917	0.0215 ***	-0.0655	0.0113 ***	-0.0605	0.0086 ***	-0.0880	0.0075 ***
시장점유율	-0.0053	0.0005 ***	-0.0021	0.0004 ***	-0.0038	0.0004 ***	-0.0048	0.0004 ***
산업더미	✓	✓	✓	✓	✓	✓	✓	✓
관측치	29,902		48,964		60,169		62,566	
수정 R <sup>2</sup>	0.126		0.030		0.038		0.040	

주: 1) \* p<0.1, \*\* p<0.05, \*\*\* p<0.01.

2) 산업중분류 더미변수의 추정결과는 생략함.

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평균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8)</sup>, 한국경제에서 독과점의 완화가 아니라 집중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같은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모든 연도에서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순일자리에 미치는 효과(추정계수값)를 정리하였다(그림 3 참조). 이에 따르면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1987년 이후 노동조합 활성화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1990년대 전체에 걸쳐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의 추정계수를 제외한다면,<sup>9)</sup> 시장점유율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

8) <부표 2> 참조.

9) 2000년의 결과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자리 창출률에 대한 효과를 제외한다면, 일자리 소멸률과 일자리 순증가율에 대한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점진적인 추세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일자리 창출률의 추정계수는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일자리 소멸률의 추정계수는 1989년, 1990년, 1995년, 2000년의 4개연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일자리 순증가율의 추정계수는 2000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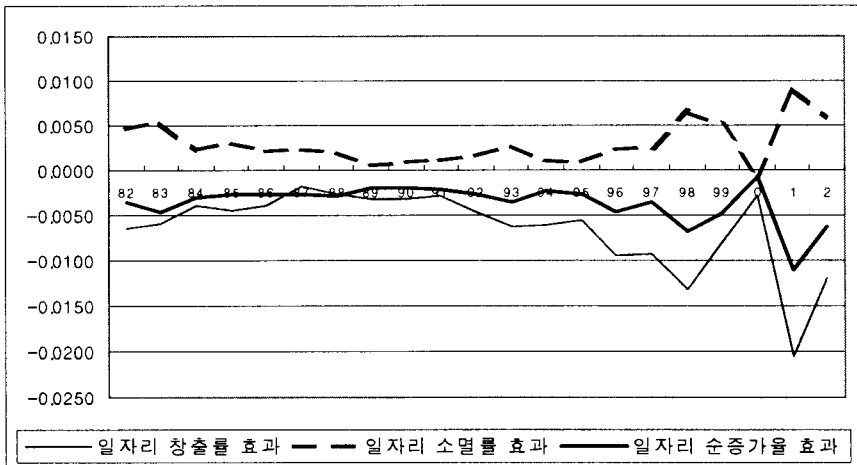
(-)의 효과와 일자리 소멸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이 평균적 시장점유율의 감소추세와 동시에 나타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2~2002년까지 한국 광공업에서 사업체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1.29→0.5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광공업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비중도 2.7→0.8%로 감소하였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의 고용 비중도 24.1→13.1%로 감소하였다(부표 2 참조). 그러므로 한국 광공업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평균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체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수적 감소 및 시장점유율의 평균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시에 1988년 이후 일자리 창출의 감소추세가 시장지배적 사업체만이 아니라, 경쟁 사업체에서도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

이는 1990년대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의 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약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의 수적 감소추세가 상품시장 독과점의 완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화된 독과점기업으로 집중과 종속이 심화된 결과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체는 일자리 순증가율을 낮추는 반면에, 필요한 일자리의 창출의 부담을 계열사 및 하청기업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이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서는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그림 3)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순효과



## 2.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여기에서는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이 경쟁 사업체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로는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을 각각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업체의 업력, 사업체 규모 더미, t-1기의 임금수준 더미, t-1기의 자본장비율(K/L) 더미, t-1기의 부가가치율 더미, t-1기의 시장사업체 더미를 사용하였으며, 산업 특성과 연도별 특성을 통제하였다(부표 5 참조). 자본장비율과 부가가치율, 임금수준은 연도별로 1인당 값을 구하여 4분위 계층별 더미변수를 만들었으므로, 각각 연도별 하위 25% 계층을 기준 그룹으로 보았을 때 상위 계층의 상대적인 일자리 효과를 보여준다. 분석의 핵심 변수인 시장지배적 사업체 더미변수는 시장점유율 10% 이상의 사업체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사업체 특성이 일자리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체의 업력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일자리 창출률이 낮고 일자리 소멸률이 높으며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았다. 그 외에 사업체의 임금수준과 자본장비율 수준, 부가가치율 수준에 따른 일자리 변동은 일관된 특징을 보인다. 고임금 사업체, 고설비 사업체, 고부가가치 사업체는 저임금, 저설비, 저부가가치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률이 높고, 일자리 소멸률이 낮아서,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았다.

이 분석의 핵심적 변수인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은 대규모 사업체나 업력이 긴 사업체와 동일한 특징을 보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 특성을 통제했을 때 경쟁 사업체보다 일자리 창출률이 낮고 일자리 소멸률이 높으며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체는 경쟁 사업체에 비해 일자리 창출률이 약 5.9% 포인트 낮고 일자리 소멸률이 4.0% 포인트 높으며 일자리 순증가율은 경쟁 사업체에 비해 4.0% 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앞의 <표 4>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체일수록 경쟁 사업체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낮아서 일자리 순증가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

<표 10>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일자리 효과 추정결과(1982~2002)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상수항	-0.1162	0.0067	***	-0.0552	0.0069	***	-0.079	0.0049	***
업력 0~2년	-	-		-	-		-	-	
업력 2~5년	-0.0936	0.0016	***	0.0245	0.0018	***	-0.0477	0.0012	***
업력 5~10년	-0.1353	0.0016	***	0.0389	0.0018	***	-0.0684	0.0012	***
업력 10~15년	-0.1735	0.0018	***	0.0632	0.0020	***	-0.0918	0.0013	***
업력 15년 이상	-0.2144	0.0019	***	0.0825	0.0020	***	-0.1094	0.0014	***
규모 50인 미만	-0.0210	0.0017	***	-0.0173	0.0018	***	-0.0071	0.0013	***
규모 50~100인	-	-		-	-		-	-	
규모 100~300인	-0.0038	0.0025		0.0224	0.0027	***	-0.0097	0.0019	***
규모 300~500인	-0.0281	0.0054	***	0.0511	0.0057	***	-0.0236	0.0040	***
규모 500~1000인	-0.0389	0.0063	***	0.0604	0.0066	***	-0.0303	0.0046	***
규모 1000인 이상	-0.0373	0.0076	***	0.0416	0.0080	***	-0.0241	0.0056	***
임금수준 1/4	-	-		-	-		-	-	
임금수준 2/4	-0.0022	0.0013		-0.0017	0.0013		0.0014	0.0009	
임금수준 3/4	0.0043	0.0014	**	-0.0030	0.0016		0.0019	0.0011	
임금수준 4/4	0.0226	0.0017	***	-0.0071	0.0019	***	0.0095	0.0013	***
KL수준 1/4	-	-		-	-		-	-	
KL수준 2/4	0.0313	0.0013	***	-0.0418	0.0014	***	0.0306	0.0009	***
KL수준 3/4	0.0403	0.0014	***	-0.0544	0.0015	***	0.0380	0.0010	***
KL수준 4/4	0.0946	0.0015	***	-0.0912	0.0016	***	0.0728	0.0011	***
부가가치 1/4	-	-		-	-		-	-	
부가가치 2/4	0.0378	0.0013	***	-0.0651	0.0014	***	0.0431	0.0009	***
부가가치 3/4	0.0719	0.0015	***	-0.1040	0.0016	***	0.0703	0.0011	***
부가가치 4/4	0.1205	0.0017	***	-0.1365	0.0018	***	0.1022	0.0012	***
사무직 비중	0.0031	0.0027		0.0666	0.0029	***	-0.0235	0.0020	***
경쟁 사업체	-	-		-	-		-	-	
시장지배사업체	-0.0592	0.0039	***	0.0396	0.0041	***	-0.0400	0.0029	***
연도더미	✓	✓		✓	✓		✓	✓	
산업더미	✓	✓		✓	✓		✓	✓	
관측치	1,168,188			1,168,188			1,168,188		
좌측절단관측치	723,441			665,625			-		
Log-likelihood	-627,267			-707,049			-		
수정 R <sup>2</sup>	-			-			0.059		

주: 1) \* p<0.1, \*\* p<0.05, \*\*\* p<0.01.

2) 산업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변수의 추정결과는 생략함.

〈표 11〉 사업체 특성별 일자리 변동과 회귀분석 결과의 차이

사업체 특성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한 이후의 결과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
시장지배력수준 ↑	-	-	+	-	+	-
업력 ↑	-	일정	-	-	+	-
규모 ↑	-	-	-	-	+	-
임금수준 ↑	-	일정	-	+	-	+
자본장비율 ↑	-	일정	-	+	-	+
부가가치율 ↑	-	-	+	+	-	+

다. 그러나 사업체의 특성들을 통제한 이후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이 대체로 상대적 고임금, 고부가가치, 고설비 사업체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일자리 순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다른 사업체 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시장지배력, 업력, 기업규모의 영향이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임금수준, 자본장비율, 부가가치율의 영향이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임금수준, 자본장비율,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으며, 업력, 기업규모,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일자리 순증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임금수준, 부가가치율, 자본장비율과 같은 요인이 일자리 순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인 반면, 시장지배력 수준, 업력, 기업규모와 같은 요인이 일자리 순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경쟁 사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순일자리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임금수준, 부가가치, 자본장비율 등의 효과가 순일자리 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업력, 기업규모, 시장지배력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사업체 속성을 통제한 이후에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업력, 기업규모가 순일자리 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소극적 학습/선택 모형(passive learning and selection process model)에 의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은 자신의 생산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기업은 성장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된다(Jovanovic, 1982). 그러므로 생산성의 증가는 일자리 순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이를 통제할 경우 이미 시장에서 일정한 규모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초기에 학습과 선택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 VI. 요약 및 결론

한국의 광공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감소추세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1988년도 이후에 나타난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1988년을 기점으로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일자리 소멸은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일자리 순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또한 1988년을 기점으로 보이는 일자리 창출의 감소추세는 시장지배적 사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경쟁 사업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광공업에서 고용정체 현상이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그 10년 전인 1988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은 경쟁 사업체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낮지만, 일자리 순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고임금, 고부가가치, 고설비, 대규모 사업체이므로, 이러한 사업체 속성의 효과를 통제 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은 일자리 창출에는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는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경쟁 사업체에 비해 높은 것은 임금수준, 자본장비율, 부가가치율이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업력, 기업규모, 시장지배력의 부(-)의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업체 속성을 통제했을 때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독자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1990년대를 관통하여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의 평균적 감소 및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수적 감소추세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 사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지배력이 강화된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간의 원하청 관계 등 기업간 분업구조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에 치중하였을 뿐,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과제들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권혜자.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12) pp.1-55.
- 김혜원.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13-51.
- 조우현. 『경제력 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15권, 1992.
- Antelius, Jesper, and Lundberg, Lars. "Competition, Market Structure and Job Turnover." FIEF Working Paper Series 2000, ISSN 1651-0852, 2000.
- Borland, Jeff and Home, Richard. "Establishment-level Employment Manufacturing Industry: Is Small Really Beautiful?" *Australian Bulletin of Labour* 20 (2) (1994): 110-128.
- Davis, Steven, Haltiwanger, John and Schuch, Scot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MIT Press, 1996, pp.57-82
- Genda, Yuji.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Japan 1991-1995."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2 (1998): 1-23.
- Geroski, Paul, A., Gregg, Paul and Reenen, John van. "Market Imperfections and Employment." *OECD Economic Studies* 26, 1996.
- Jovanovic, Boyan.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Econometric Society* 50 (3) (1982): 649-670.
- Konings, Jozef. "Gross Job Flows and the Evolution of Size in U.K Establish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7 (1995): 213-220.

- Manning, Alan. *Monopsony in Motion-Imperfect Competition in Labor Marke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p.3-11.
- Nickell, Stephen, Vaintomaki, Jari, and Wadhvani, Sushil. "Wages and Product Market Power." *Economica* 61 (1994) : 457-473.
- Nickell, Stephen. "Product Markets and Labour Markets." *Labour Economics* 6 (1999): 1-20.
- Picot, Garnett. and Dupuy, Richard. "Job Creation by Company Size Class: Concentration and Persistence of Job Gains and Losses in Canadian Companies." Research Paper 93, Business and Labour Market Analysis Division, Statistics Canada, 1996.
- Stewart, Mark B. "Union Wage Differentials, Product Market Influences and the Division of Rents." *The Economic Journal* 100 (403) (1990) : 1122-1137.
- Wagner, Joachim. "Firm Size and Job Creation in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7 (1995) : 469-474.

〈부표 1〉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의 기초통계

(단위: 개, 명, %)

연도	지속 사업체수	원자료 대비 사업체비율	지속사업 체증가율	지속사업체 종사자수	원자료 대비 종사자비율	종사자수 증가율	평균 종사자수	평균 종사자 증가율
1982	28,409	73.3	-	1,901,751	87.0	-	66.9	-
1983	31,604	76.9	11.2	2,075,720	90.2	9.1	65.7	-1.9
1984	33,776	77.8	6.9	2,163,363	89.0	4.2	64.1	-2.5
1985	36,496	79.5	8.1	2,277,977	90.1	5.3	62.4	-2.5
1986	38,477	74.0	5.4	2,521,862	89.0	10.7	65.5	5.0
1987	43,210	76.7	12.3	2,773,015	89.6	10.0	64.2	-2.1
1988	47,330	76.7	9.5	2,854,843	89.0	3.0	60.3	-6.0
1989	50,001	74.1	5.6	2,737,981	86.4	-4.1	54.8	-9.2
1990	53,666	76.2	7.3	2,750,080	89.3	0.4	51.2	-6.4
1991	57,950	78.3	8.0	2,670,134	89.6	-2.9	46.1	-10.1
1992	60,149	78.8	3.8	2,548,232	89.3	-4.6	42.4	-8.1
1993	61,006	67.4	1.4	2,460,486	83.9	-3.4	40.3	-4.8
1994	71,426	77.2	17.1	2,654,634	89.5	7.9	37.2	-7.8
1995	69,492	71.4	-2.7	2,626,975	88.1	-1.0	37.8	1.7
1996	76,836	78.3	10.6	2,665,233	91.1	1.5	34.7	-8.2
1997	74,982	80.6	-2.4	2,447,515	89.9	-8.2	32.6	-5.9
1998	64,502	80.3	-14.0	2,050,269	87.5	-16.2	31.8	-2.6
1999	63,174	68.8	-2.1	2,147,595	85.0	4.7	34.0	6.9
2000	73,389	74.3	16.2	2,222,681	83.2	3.5	30.3	-10.9
2001	77,171	72.4	5.2	2,228,091	83.6	0.2	28.9	-4.7
2002	74,632	67.2	-3.3	2,216,796	81.7	-0.5	29.7	2.9
전체 및 평균	1,187,678	74.8	5.2	50,979,862	87.7	1.0	42.9	-3.9

자료: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



〈부표 2〉 시장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의 고용비중

(단위: %, 명)

연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시장지배적 사업체 수	시장지배적 사업체비중	시장지배적 사업체 종업원 수	시장지배적 사업체 종사자 비중(1)	시장지배적 사업체 종사자 비중(2)	시장지배적 사업체의 평균규모	경쟁 사업체 평균규모
1982	1.29	775	2.7	526,414	27.7	24.1	679.2	49.8
1983	1.18	993	3.1	611,938	29.5	26.6	616.3	47.8
1984	1.40	1,000	3.0	596,562	27.6	24.5	596.6	47.8
1985	1.34	965	2.6	580,970	25.5	23.0	602.0	47.8
1986	1.25	944	2.5	618,351	24.5	21.8	655.0	50.7
1987	1.13	955	2.2	640,359	23.1	20.7	670.5	50.5
1988	1.04	925	2.0	636,292	22.3	19.8	687.9	47.8
1989	0.98	887	1.8	583,617	21.3	18.4	658.0	43.9
1990	0.90	974	1.8	606,919	22.1	19.7	623.1	40.7
1991	0.92	1,030	1.8	608,087	22.8	20.4	590.4	36.2
1992	0.91	985	1.6	560,491	22.0	19.7	569.0	33.6
1993	0.86	920	1.5	530,503	21.6	18.1	576.6	32.1
1994	0.75	932	1.3	553,332	20.8	18.7	593.7	29.8
1995	0.76	905	1.3	553,253	21.1	18.6	611.3	30.2
1996	0.70	931	1.2	561,738	21.1	19.2	603.4	27.7
1997	0.70	928	1.2	518,967	21.2	19.1	559.2	26.0
1998	0.80	937	1.5	455,653	22.2	19.4	486.3	25.1
1999	0.84	685	1.1	434,375	20.2	17.2	634.1	27.4
2000	0.60	599	0.8	376,250	16.9	14.1	628.1	26.0
2001	0.54	646	0.8	378,881	17.0	14.2	586.5	24.2
2002	0.57	620	0.8	355,310	16.0	13.1	573.1	25.2
합계및 평균	0.86	18,536	1.6	11,288,262	22.1	19.4	609.0	34.0

주: 시장지배사업체 종사자 비중(1)은 지속사업체 자료 종사자수에 대비한 것임.

시장지배사업체 종사자 비중(2)은 광공업통계조사자료 종사자수에 대비한 것임.

〈부표 3〉 광공업 지속사업체의 연도별 일자리 변동(1982~2002)

	일자리 창출률 (JCR)	일자리 소멸률 (JDR)	일자리 순증가율 (JGR)	일자리 재배치율 (JRR)	초과 일자리 재배치율 (JER)
1982	10.7	10.3	0.4	21.0	20.6
1983	13.4	7.4	6.0	20.8	14.8
1984	11.4	9.3	2.1	20.7	18.6
1985	10.3	8.8	1.5	19.1	17.6
1986	14.0	6.4	7.6	20.4	12.8
1987	12.1	7.1	5.0	19.2	14.2
1988	9.1	10.4	-1.3	19.5	18.2
1989	6.3	13.2	-6.9	19.5	12.6
1990	7.8	11.7	-3.9	19.5	15.6
1991	7.3	12.1	-4.8	19.4	14.6
1992	6.9	12.0	-5.1	18.9	13.8
1993	9.3	10.6	-1.4	19.9	18.5
1994	9.9	8.5	1.3	18.4	17.1
1995	9.8	9.4	0.4	19.2	18.8
1996	10.0	11.1	-1.0	21.1	20.1
1997	6.5	14.1	-7.6	20.6	13.0
1998	5.6	18.9	-13.3	24.5	11.2
1999	13.3	8.2	5.1	21.5	16.4
2000	13.4	8.2	5.3	21.6	16.3
2001	9.0	16.1	-7.1	25.1	18.0
2002	9.9	16.8	-6.9	26.7	19.8
평균값	9.8	11.0	-1.2	19.0	16.3
표준편차	2.5	3.3	5.5	2.2	2.7

자료: 광공업 지속사업체 자료, 1982-2002.

〈부표 4〉 광공업통계조사 부분수정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일자리 변동 (1982~2002)

	일자리 창출률 (JCR)	일자리 소멸률 (JDR)	일자리 순증가율 (JGR)	일자리 재배치율 (JRR)	초과 일자리 재배치율 (JER)
1982	21.3	19.1	2.2	40.4	38.2
1983	22.2	15.9	6.3	38.1	31.8
1984	20.7	16.5	4.2	37.2	33
1985	18.6	15.1	3.6	33.7	30.1
1986	24.7	12.2	12.5	36.9	24.4
1987	22.1	13.8	8.3	35.9	27.6
1988	18.7	15.6	2.1	34.3	32.2
1989	17.6	19.8	-2.1	37.4	35.3
1990	16.9	19.1	-2.3	36	33.7
1991	15.7	19.7	-3.9	35.4	31.5
1992	15.2	20	-4.9	35.2	30.3
1993	22.4	19.9	2.5	42.3	39.8
1994	18.2	17.1	1.1	35.3	34.2
1995	19.3	18.6	0.7	37.9	37.2
1996	17.5	19.1	-1.6	36.6	35
1997	13.7	22.2	-8.5	35.9	27.4
1998	11.7	28.9	-17.2	40.6	23.4
1999	22.4	14.5	7.9	36.9	29
2000	21.9	19.4	2.5	41.3	38.8
2001	23.9	22.9	1	46.8	45.8
2002	20.5	19.1	1.4	39.6	38.2
평균값	19.3	18.5	0.8	37.8	33.2
표준편차	3.4	3.6	6.3	3.1	5.4

자료: 광공업 사업체 부분수정 자료, 1982-2002.

〈부표 5〉 전체 자료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변수명	변수 설명	평균값	표준편차
	<종속변수>		
일자리 창출률	양의 일자리 증가인원/2기간 평균 종업원수	0.199	0.290
일자리 소멸률	음의 일자리 증가인원/2기간 평균 종업원수(절대값)	0.207	0.289
일자리순증가율	일자리 순증가/2기간 평균 종업원 수	-0.014	0.386
	<독립변수>		
사업체 업력 더미	t-1기의 사업체 업력 사업체 업력 2년 미만이면 1, 아니면 0(기준그룹)	0.086	0.281
	업력 2~5년이면 1, 아니면 0	0.268	0.443
	업력 5~10년이면 1, 아니면 0	0.305	0.460
	업력 10~15년이면 1, 아니면 0	0.165	0.371
	업력 15년 이상이면 1, 아니면 0	0.160	0.366
사업체 규모더미	t 기와 t-1기의 평균 종업원 수 더미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이면 1, 아니면 0	0.854	0.352
	규모 50~100인이면 1, 아니면 0(기준그룹)	0.076	0.265
	규모 100~300인이면 1, 아니면 0	0.049	0.216
	규모 300~500인이면 1, 아니면 0	0.007	0.086
	규모 500~1000인이면 1, 아니면 0	0.005	0.074
	규모 1,000인 이상이면 1, 아니면 0	0.003	0.061
임금수준더미	t-1기의 일인당 임금 연도별 임금수준의 4분위 계층을 구하여 하위 1/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기준그룹)	0.373	0.483
	2/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255	0.436
	3/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202	0.401
	상위 4/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167	0.373
자본장비율 더미	t-1기의 1인당 자본장비율(유형고정자산/종업원수) 연도별 자본장비율의 4분위 계층을 구하여 하위 1/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기준그룹)	0.280	0.449
	2/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259	0.438
	3/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243	0.429
	상위 4/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216	0.411
부가가치율 더미	t-1기의 1인당 부가가치율 (생산액-생산비)/종업원수 연도별 1인당 부가가치율의 4분위 계층을 구하여 하위 1/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기준그룹)	0.365	0.481
	2/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215	0.411
	3/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188	0.391
	상위 4/4분위 계층이면 1, 아니면 0	0.231	0.421
사무직 비중	사업체의 사무직 비중	0.192	0.189
시장지배적 사업체 더미	t-1기의 산업 세분류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면 1, 아니면 0	0.015	0.125
산업더미	산업 2-digit별 산업더미		
연도더미	연도별 더미		

abstract

---

## The Effect of Firm's Market Power on Job Creation in Korea

Kwon Hye Ja · Cho Woo Hy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market power of firms in the product market on job creation, job destruction and net job growth. It uses the reconstructed establishment data in the Korean Annual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between 1982 and 2002. This paper shows that job creation has continuously declined since the late 1980s and the decline is common for both market-dominant and competitive firms. The effect of market dominance on job creation is negative, controlling the firm-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firm size and firm age.

Key Words: Job Creation, Job Destruction, Job Net Growth, Market Power,  
Market Share